

기도의 동역자 여러분,

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저희는 모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, 현재 주된 초점은 가자 지구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 아쉬켈론에 맞추어져 있습니다. 이곳은 전쟁 초기부터 로켓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인구 약 17만 명의 대도시입니다. 저희 스태프 에두아르드는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. 저희 아비브 아웃리치 센터의 관리자이자 자신의 도시에 새로 온 이민자들 가운데 아비브 미니스트리 프로젝트의 리더입니다. 요즘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쉬켈론 사람들을 돕느라 바쁩니다.

전투가 시작된 이후로 1,000발이 넘는 로켓이 아쉬켈론을 향해 발사되었으며, 그 중 약 15%는 요격되지 않고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. 도시의 상황은 매우 긴장되어 시민의 4분의 1이 떠났고,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(폭탄 대피소가 있다면) 집 또는 공공 방공호에 로켓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(공포, 신체적 상태,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) 전혀 밖에 나갈 수 없고,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문을 연 상점들은 매우 빨리 식료품과 다른 생필품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항상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. 아쉬켈론 사람들 중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노인과 장애인, 어린 자녀를 둔 미혼모와 새로운 이민자들입니다. 지자체가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, 너무나 압도적인 상황입니다.

에두아르드와 그의 조력자들은 매일 따뜻한 음식을 요리하여 방공호에 나눠줄 뿐만 아니라, 집에 숨어 사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음식 꾸러미, 물 등을 가져다 줍니다. 게다가, 에두아르드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 폭탄 대피소가 없는 아파트에서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이러한 음식 배포와 방문 동안에 에두아르드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, 이것은 요즘 음식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. 에두아르드의 접촉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로, 한 차례의 전쟁에서 도망쳐 다른 전쟁에 직면해 있고, 이로 또 다른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.

에두아르드가 아쉬켈론 사람들의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떤 재정적인 후원이라도 함께 해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. 이 일에 드는 비용은 하루에 약 1,000달러 정도인데, 저희에게 큰 금액입니다. 게다가 더 많은 재정으로 저희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생용품과 다른 기본 생필품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. 에두아르드와 그의 팀은 매우 에너지 넘쳐, 이 활동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

아래 여러 장의 사진을 첨부합니다.

여러분을 축복합니다.

도브 & 올가 비카스, 그리고 아비브 미니스트리 팀

추신. 만약 하나님께서 아쉬켈론의 저희 사역을 위해 후원을 하도록 마음을 주신다면, 저희가 금액을 알고 바로 보내주신 후원금을 쓸 수 있도록 짧은 메모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